



古代日本の
「西の都」
-東アジアとの交流拠点-

기야마초 역사 유산과 풍경을 즐기는 '기이성 유적' 산책

미즈키·오노성과 함께 다자이후 정령의 방어선으로 쌓인 일본 최고의 본격적인 산성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특별사적 '기이성 유적'. 당시의 건조 기술과 국방 전략을 현대에 전하는 귀중한 사적 돌아보기, 기산의 풍부한 자연과 만요슈에 읊어진 '성의 산도'의 모습, 북부 규슈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대파노라마도 즐길 수 있습니다.

